

SIDERE FLORUM

모든 별들은 두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 별들을 잇는 자.

시작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전설로 남아 떠돌던 스텔라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접한 것으로 시작하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넘기겠지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세계의 무게를 진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 두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는 곳을 만들 순 없을까?'

의문은,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스텔라나이트들이 외롭지 않길 바래.'
'별의 기사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강한 소원.
이후가 예상되시나요?

두 여신님들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계약 이후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필요한 훈장들을 다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시리데 플로움 꽃의 별자리의 시작입니다.

조직 특성

1) 규율

이 곳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은 어떠한 차이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규칙이 있으며, 대부분이 그 규칙에 따르기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작은 다툼은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2) 직급

공동 리더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각기 팀으로 나뉩니다. 물론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스텔라나이트들도 존재하며 이들 또한 시리데 폴리움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기 팀은 각자 맡은 사무 등을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와 같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팀장은 언제나 한 페어가 공동으로 맡게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의 내부 분위기는 수평적이며,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 가입 방식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리더들이 직접 스텔라나이트를 찾아오거나, 무언가에 이끌려 직접 본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4) 본부

변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서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담쟁이 덩굴이 얹힌, 텅 빈 건물처럼 보입니다. 두 리더의 소원이 '스텔라나이트들이 모이는 비밀 조직'이었기에, 두 여신님들이 이 곳의 보호에 힘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마치, 정원을 서점 안으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꽃들이 피어있으며, 푸른 풀들이 자랍니다. 신기하게도 이 환경은 꽃혀있는 책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 리더들



카르다민 (Cardamine): 브링거

소속 조직 - 시리데플로움
당신의 이야기 - 숙련된 스텔라나이트
소원 - 계약자
절망 - 부조리한 세계
성격 - 속을 알 수 없는, 완고한
키워드 - 모든 별들은 두 사람에서부터,
주요 업무 - 내부 사무



아르메리아 (Armeria): 시스

소속 조직 - 시리데플로움
당신의 이야기 - 숙련된 스텔라나이트
소원 - 계약자
희망 - 구세주
성격 - 따뜻포근, 치유계

키워드 - 그리고 우리는 그 별들을 잇는 자.

주요업무 - 대외적 사무

두 리더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호감은 있으나 상대는 같은 감정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플레이하는 분들에 따라 이는 물론 개변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아셀트레이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아르메리아 쪽은 이웃네이버가 맞습니다.

학교의 소속이자, 시리데플로움에 동시에 속해있을 수 있습니다. 시트라 여학원의 경우에는 본부에 자주 방문이 힘들어 시리데플로움 내부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직에 속해있는 스텔라나이트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라면 가입에 제한이 없으나 나이 어린 기사들은 그만큼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리더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피츠메이커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현재 본인은 유료로 워터마크 제거 후 이용중입니다. 무단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본작은 드라코니언 및 주식회사 **KADOKAWA**가 권리를 보유하는 은검의 스텔라나이트의 라이선스를 도서출판 초여명이 받아 만든 은검의 스텔라나이트 한국어판의 2차 창작입니다.

(C)Fuyu Takizato / Draconian

(C)KADOKAWA

(C)도서출판 초여명